

교회소식

◆ 광고

1. 오늘 2부 예배후 정기 당회 모입니다.
2. 오늘 오후 예배 찬양은 글로리아 찬양대입니다.(연습 2시, 소망관)
3. 2014년 대전신일교회 바자회가 은혜가운데 마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참여와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4. 이번 주 10월1일부터 수요기도회 시간이 7:00로 변경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금요선교기도회 ①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8~10시 ②장소 : 고신총회선교센터 예배당
6. 여전도회연합회 주관 호도관광이 10월 14일(화)에 있습니다.
참석하시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연합여전도회 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동정

- ① 생일 축하합니다 : 박유연,김경탁,최차규,엄서운
- ② 식사대접 : 최미애 성도/아들 준영이를 주시고 1년 동안 길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③ 결혼 : 유병성 성도의 장녀 유한나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시간 : 2014.10.3일(목) 오후 1시 장소 : 유성컨벤션웨딩홀 2층 펠리스 홀 교회에서 12시에 출발합니다.

※교회 기도제목

1. 영혼구원하고 제자삼는 교회 되게 하소서.
2. 신일교회에 큰 부흥이 있는 한 해 되게 하소서.
3.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 되게 하소서.

◆ 모임/청지기 안내

다음주일새벽찬양	금주 수요찬양	오늘 식사봉사	목장성경공부	전도특공대	중보기도학교	새가족성경공부
제 4남전도회	여 13,14목장	제5여전도회	각 목장별로	수요일 오전10:00	목요일 오전 10:30	주일2부(예배후)(각교실)

◆ 10월 행사

- 5일 : 신일비전헌신예배, 정기제직회
- 12일 : 각 기관 월례회, 정기가을노회(13~14)
- 19일 : 제7, 8, 9여전도회 헌신예배
- 26일 : 정기당회,종교개혁주일,SFC주일

◆ 10월 안내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권유순, 정영주

◆ 10월 헌금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박순국, 오승엽, 박유연, 소재역, 이진석, 곽복남, 이정자

새 가족

번호	성명	목장	인도자	주소	전화	소속기관

주일낮예배

1부 : 오전 9시 인도 안 주 모 목사
2부 : 오전11시 설교

♣ 사도신경..... 다같이

♣ 찬 송 다같이
새80장(구101장)
새304장(구404장)
당신의 그 섬김이

기 도 1부/강일창 장로
2부/양문주 장로

성경말씀 인도자

옴기 7:1~10(구 P767)

찬 양 1부/호산나 찬양대
2부/할렐루야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인생의 실존

기 도 설교자

찬 송 ... 새479장(구290장) .. 다같이

헌 금 다같이

감사와 축복 인도자

♣ 찬 송..... 주기도문송 다같이

♣ 축 도 담임목사

광 고 담임목사

✚ 다음주 기도 1부 / 김제곤 장로
2부 / 박권용 장로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

주일오후예배

오후 3시 인도 최사무엘 목 사
설교 정 기 훈 강도사

예배선언 인도자

다함께 찬양을...

기 도 이진석 집사

성경말씀 인도자

사도행전 16:16~34(신 P216)

찬 양 글로리아 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

찬 양 새422장 다같이

광고/축도 인도자

✚ 다음주 기도/ 김민철 집사

수요기도회

오후 7:00 인도 안 주 모 목사
설교

목 도 다같이

찬 송 ... 새323장(구355장) ... 다같이

기 도 신윤경 집사

성경말씀 인도자

출애굽기 4:10~17(구 P86)

말씀선포 설교자

소명자의 자세

목장찬양 여 13, 14 목장

축 도 인도자

기 도 회

✚ 다음주 찬양 / 여 15, 16 목장

✚ 다음주 기도 / 조수정 집사

Since. 1978

No 39. 2014. 9. 28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대전신일교회

금년목표 :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고후 5:17)

1. 전파하는 교회(전도, 선교)
2. 가르치는 교회(교육, 훈련)
3. 치료하는 교회(예배, 상담)
4. 봉사하는 교회(섬김, 나눔)

◆교회를 섬기는 분◆

담임목사 안주모
부 목 사 최사무엘 최영준
전 도 사 김금분 정기훈
장 로 김제곤 강일창 박권용 우성한 김명권 양문주
남동균 원용국 박근용 안재경
은퇴장로 이수영 정길원 정태수 윤선옥 우호선 김종남

찬양지휘 이옥영 송명남 정기훈 윤현덕 조양순
반 주 조성일 김진영 강경숙 김애숙 박채리 조수정
기 악 윤현덕 김성욱 남정아 박채원

300-825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517번길 14(용전동)

TEL. (042) 622-7724(교회) 625-7724(목사관) 625-7723(당회실)

FAX. (042) 624-7721 www.no1shinil.org

초 대 합 니 다

1.신일교회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아픈 곳을 치료하는 교회,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로서 세상과 이웃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2.신일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와 연대를 가지고 구제와 장학사업 등 사회복지에 힘쓰며 가정사역, 치유사역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어 세상의 빛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신일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주역인 자녀들을 위해 교사정예화와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교육현장을 혁신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젊은이를 위한 찬양예배 활성화와 새가족양육, 부부성경공부, 제자훈련 등 각종 평신도 훈련과정을 통해 건강한 교회 만들기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안 주 모

예 배 시 간

예 배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 9시, 2부/오전 11시	본 당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3시	본 당
	수 요 기 도 회	동절기/저녁 7시, 하절기/저녁 7시30분	본 당
	새 벽 기 도 회	새벽 5시	사 랑 관
		새벽 6시	사 랑 관
제 자 교 육	심 야 기 도 회	수요기도회 후	본 당
	수 요 전 도	수요일 오전 10시	소 망 관
	중 보 기 도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사 랑 관
	목 장 성 경 공 부	목장별로	각 교 실
	새가족성경공부	2부예배 후	각 교 실
주 일 학 교	유 치 부	주일 오전 9시	사 랑 관
	초 등 부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1층
	초등부오후예배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중 고 등 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1층
	청 년 말 투 스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우리가 돕는 교회 및 기관

- 협력선교사** : 인도/윤지원, 터키/곽동신, C국/오성학, 국내이주민/김복경, C국/하요한, 필리핀/박원재, 프랑스/박신희, 아르헨티나/윤춘식, 파라과이/이태오, 러시아/배성운, 국내선교부/남후수, 미얀마/김민, 태국/정규호, 차양마이/인턴넷방송, 필리핀 추수선학교/오일환, 인도구조르트/전미숙
- 미자립교회** : 의령삼일교회/의령, 덕신영광교회/울주, 지탄사랑교회/영동, 놀인교회/청송, 원당교회/영동, 아하교회/대전, 십자성교회/해운대 군인교회, 벨엘교회/창원 군인교회, 힐령교회/김해
- 학원선교** : 대전충청지역 S.F.C, 간사/이성은 김예정
- 기관선교** : 극동방송국/대전, 웅달생드롭민센터/서울, 북한어린이 사랑의 빵/한민족복지재단, 고신장학회
- 문서선교** : 기독교보사, 월간고신사, 코람데오닷컴사

향기로운예물

✦ 십일조헌금

강철원(이지영), 강해성(김성원), 김명숙, 김선화, 김영민(함현숙), 김준철(신윤경), 박남수, 박상임, 박석문(정인선), 박영숙A, 박영숙B, 박유연, 박혜진, 송정희, 신금순, 양문주(권유순), 양요한, 오승엽(김영희), 우수완, 이상균(김상희), 이선환, 이성은(박선숙), 이영일(홍은미), 이재익(김애숙), 정기훈(최연옥), 정길원(정채순), 정옥근(이경미), 정인택(이정숙), 조성철(이해련), 최원나

✦ 감사헌금

강일창(고숙자), 강철원(이지영), 김영권(정영주), 김재홍(한영자), 김재곤(한영실), 김종남, 김진온(김남주), 마주성(김선영), 박상영, 박석문(정인선), 박순국(조수경), 박영숙A, 박유연, 박은정, 박혜정, 박혜진, 소재익(김미희), 신동영(강경숙), 안재경(정은숙), 안주모(조양순), 양문주(권유순), 오승엽(김영희), 오정석(정주희), 원용국(김복근), 윤성욱(김신혜), 이상균(김상희), 이은정, 이인호(정지혜), 이재익(김애숙), 정기훈(최연옥), 정길원(정채순), 정옥근(이경미), 조성철(이해련), 최사무엘(서남지), 최영준(한은정), 함돈수(곽정자), 무영

✦ 선교헌금

강철원(이지영), 김영권(정영주), 김명숙, 김영민(함현숙), 김영순A, 김진순(윤미라), 박상임, 박석문(정인선), 박혜진, 양문주(권유순), 이상균(김상희), 이은하, 정길원(정채순), 정옥근(이경미), 조성철(이해련), 최사무엘(서남지)

✦ 일천번제헌금

강해성, 김진국(김영숙), 남동균(윤현숙), 남용민, 박유연, 안스디자민, 안영원(영민/해린), 안재경, 양문주(권유순), 이승민(임서윤), 이영일(홍은미), 이재현(김희), 정은숙(손연/진성), 정옥근(이경미), 무영

✦ 비전헌금

강철원(이지영), 강춘자, 김영순A, 박남수, 박유연, 이상균(김상희), 이은하, 정기훈(최연옥), 조성철(이해련)

✦ 목적헌금

김종남

✦ 장학헌금

정옥근(이경미)

목장현황

2014. 9. 15~9. 21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남1초원	1 김종남	교 회	3	20,000		교 회	03초원	5 김채욱	교 회	3	7,000	40	교 회
	2 강일창	교 회	3	11,000	100	교 회		6 고숙자	교 회	3	7,000	50	교 회
남2초원	3 박근용	교 회				교 회	04초원	7 곽복남	교 회	3	10,000	13	교 회
	4 김영권	교 회				교 회		8 성영옥	교 회	3	12,000	70	교 회
남3초원	5 남동균	교 회	1	5,000	44	교 회	05초원	9 구남랑	교 회	4	12,000	15	교 회
	6 안재경	교 회	1	5,000	30	교 회		10 정해민	교 회	1	5,000	10	교 회
남4초원	7 오승엽	교 회	2	5,000		교 회	06초원	11 함현숙	교 회	1	5,000		교 회
	8 박순국	교 회	1	5,000		교 회		12 김복근	교 회	2	5,000	60	교 회
남5초원	9 조성철	교 회	1	5,000	3	교 회	07초원	13 정옥자	교 회	2	10,000	17	교 회
	10 이인호	교 회				교 회		14 이경미	교 회	2	15,000	30	교 회
여2초원(실버)	1 김명자	교 회	3	13,000	70	교 회	08초원	15 신윤경	교 회				교 회
	2 김명숙	교 회	4	17,000	55	교 회		16 김춘복	교 회	2	10,000	5	교 회
여2초원(실버)	3 권월성	교 회	4	13,000	130	교 회	09초원	17 한은정	교 회	3	4,000	33	교 회
	4 정채순	교 회	4	12,000	100	교 회		18 서남지	교 회	4	10,000	25	교 회

금주의 말씀

인생의 실존

요기7:1~10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뜻하지 않게 극심한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극심한 인생의 위기를 겪으면서 욥이 인생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가장 높은 곳에서, 인생의 가장 낮은 밑바닥까지 경험한 욥이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욥이 발견한 인생의 참모습은 무엇일까요?

1.노동 하는 인생

욥이 말하는 인생의 참모습은 우선 노동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이 땅에서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일을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끝났다는 것은 곧 그 생이 끝났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인생은 일하는 세상에 와서 일하다가 그 일이 끝나면 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땅위에 오고 간 수많은 인생들이 일하다가 갔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든지, 가족을 위해서 일하든지, 나라를 위해서 일하든지, 세계를 위해서 일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일했는지에 대해서는 끝없는 대단이 있을 다투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이해야 하는 그 일들이 인간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힘든”이라고 말하고 있고, 3절을 보면 “고통을 받으노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고달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해야 하는 일들이 인간을 고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일해야 하는 인간을 “증”으로 그리고 “품꾼”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은 사나이가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품꾼은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이 해야 하는 일들은 힘들어 육체적으로 인간을 고달프게 할 뿐 아니라, 악지로 마지못해 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고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욥이 소개해 주는 인간의 참모습은 일 때문에 고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20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일하게 하셨는데 그 일이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3:17이하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너로 밭이매야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은 먹으리라... 너 나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뒤 그 일이 더 이상 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질병과 싸우는 인생

욥이 말하는 또 하나의 인생의 참모습은 질병과 싸워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타지는구나.” 욥이 지금 투병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욥이 지금 싸우고 있는 질병은 욥이 27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려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러나 거기에서 발끝까지 온 몸이 악성 종기가 났다는 것입니다. 온 몸이 건디기 힘든 거러움증과 잠을 잘 수 없는 끝없는 통증 그리고 몸 구석구석에 파리와 벌레가 기어다니는 끔찍한... 정말 욥이 당한 질병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욥은 치열하게 생명을 걸고 질병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예전통신에서 쫓겨나오면서 질병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예전통신에서 쫓겨나오면서 ‘노화’라는 과정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체기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며 서서히 소멸되어가는 과정을 밟게 된 것입니다. 신체기 점점 약화되면서 쉽게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자라다 갖가지 질병에 걸려 고통을 받게 됩니다. 현대의학은 노화와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유전자 손상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인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유전자 손상을 입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서서히 늙어가고 또한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질병과 싸우며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19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창치기로서 내 몸을 잘 돌보고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26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질병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 주십니다.

셋째, 법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8절에 “법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하였습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과 저주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감사’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3.결국 죽는 인생

욥이 말하는 또 하나의 인생의 참모습은 결국 죽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문 8-10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 자라도 내가 있지 아니 하리이다. 구덩이 사려져 앉아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요 나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참 안타깝고도 쓸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더라도 결국은 사라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안개가 저속하게 끼어 있다가 햇살이 비치면 사라져 없어짐같이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기가 막히는 것은 7월입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이 땅에 존재하는 기간조차도 그리 길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욱 실감나게 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0:10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찰싹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리이다.”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문명은 창조 직후부터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 3:19) 모든 인간은 흙에서 왔고,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인간의 참모습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결국 죽어야 할 존재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죽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합니다. 셋째,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사망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참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 인생은 일을 해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질병과 싸우며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나아가 결국은 죽어야 할 존재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그럴 때 더욱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더욱 겸손하고 진솔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